

혈기로 인한 불순종의 징계

민수기 20:1~13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혈기가 올라올 때는 어떤 순간입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성도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답변했습니다. 그중 1위는 놀랍게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 은혜를 가족들과 나눴을 때, 당신부터 잘하라는 편지를 들었을 때’,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주차요원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받고 열심히 봉사한 내가 아니라,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았을 때’ 등이 있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를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격해 분노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도록 현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고전 10:12)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집회나 예배 등에서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경 이해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후 가데스(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한 징계로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14:26~33)이 약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가데스는 신 광야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약 40년이 흐른 때에 출애굽 1세대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출애굽한 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했듯이(출 17:1~3), 약 40년 후 물이 없는 상황에 놓이자 애굽 2세대 또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을 지닌 ‘가데스’는 본래 오아시스 지역으로, 당시에는 가뭄 때문에 물이 마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했나요?(3~5절)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1절은 ‘정월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의 첫 번째 달을 가리킵니다. 광야 40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1:1~4).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 험한 곳에서 생활하며, 명령에 복

종합합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물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의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13:25~14:5).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분노하며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적용과 나눔 I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시 119:97)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읊조린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다면 어떤 결핍이나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II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과 달리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으며,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10~12절; 참조. 7~8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10절)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뒤 그들 앞에서 반석에 명령해 물을 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망령되이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시 106:32~33).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려친 행동에서도 그의 혈기와 분노와 자기 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백성에게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도리어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적용과 나눔 II

나는 어떤 순간에 혈기가 올라오나요? 내 삶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 끓어오르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일터, 교회 등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했으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비난하고 원망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분노하며 혈기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투거나 죄짓는 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 가야 합니다(히 12:2).